

중국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의 수집과 특징

Collection and Characteristics on Korean Rare Books in Zhejiang Library of China

김 효 경 (Kim, Hyo-kyoung)*

안 혜 경 (Ahn, Hye kyong)**

◁ 목 차 ▷

- | | |
|----------------------------|-------------------|
| 1. 들어가는 말 | 3.3 판종별 현황 |
| 2.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의 수집 | 4. 한국 고문헌의 자료적 특징 |
| 2.1 절강도서관의 연혁 | 4.1 장서인 |
| 2.2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의 수집 경위 | 4.2 내사본(內賜本) |
| 3. 한국 고문헌의 서지적 분석 | 4.3 왕수의 친필 기록 |
| 3.1 주제별 현황 | 5. 나오는 말 |
| 3.2 간행시기별 현황 | <참고문헌> |

<초 록>

본 연구는 중국 절강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을 실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 절강도서관에서 한국 고문헌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자료는 모두 218종 1,120책이었다.

중국 절강지역은 중국 내에서도 장서문화가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인 만큼 절강도서관도 절강지역 장서가들의 기증에 의해 장서가 형성되었으며, 한국 고문헌 역시 원래 절강지역 장서가들의 소장본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어서 한국 고문헌에 대한 주제별, 간행시기별, 판본별로 서지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제별로는 경부 25종 129책, 사부 76종 270책, 자부 42종 296책, 집부 75종 425책이 소장되어 있다. 간행시기별로는 16세기 간행된 『창진집』부터 20세기 간행된 『조선왕조실록』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19세기의 장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판종별로 살펴보면 목판본이 가장 많으며, 이 외에도 금속활자 37종, 필사본 34종 등이 소장되어 있다.

또한 한국 고문헌의 자료적 특징으로 장서인과 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파악된 8종의 내사본과 장서가 왕수의 친필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조사와 연구가 향후 중국소재 한국 고문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要語: 중국 절강도서관, 고적부, 한국 고문헌, 장서가, 왕수, 유승간

*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kimhyo777@korea.kr) (제1저자)

**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hkahn@korea.kr) (교신저자)

투고일: 2019년 11월 19일 최초심사일: 2019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9일
서지학연구, 제80집, 239-267,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80.239>

<ABSTRACT>

This paper studies and analyses Korean rare books preserved in Zhejiang Library of China. The collections categorized as Korean rare books include 218 titles and 1,120 volumes in Zhejiang Library.

The Zhejiang area was one of the regions where the culture of book collection was very active in China. Therefore book collection of Zhejiang library was also formed by the donation of Zhejiang region's collector.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Korean rare books in Zhejiang library was also originally a collection of books from the Zhejiang area's collector. In addition, we also checked how they came to collect the Korean rare books.

Next, we conducted a bibliographic analysis of Korean rare books by subjects, publishing period, and edition. First, examining these by subjects, there are 25 titles and 129 books of Classics, 76 titles and 270 books of History, 42 titles and 296 books of Sciences and Arts, and 75 titles and 425 books of Literature. Second, by publishing period, they range from *Changjinjip* published in 16th century to *Joseongohwaljapanseupyeop* (Sample book of typo in Joseon period) in 20th century. Especially most of the books were published in 19th century. Finally, analysing Korean rare books by edition, woodblock printed books are made up the greatest portion, whereas there exist 37 metal printed books and 34 manuscript ones.

In addition, the material features were reviewed around *ex libris* seals, books awarded to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by the kings of Joseon dynasty, and the handwritten record of collector Wang Xiu.

We hope that this series of investigations and research will be used as basic data on related research.

Key words: Zhejiang Library of China, Korean rare books, Collector, Wang Xiu, Liu Chenggan

1. 들어가는 말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외로 유출된 귀중한 고문헌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조사·영인 수집함으로써 국가문헌 보존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난 198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자료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제한 것을 시작으로,¹⁾ 현재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9개국 43개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고문헌을 복제, 디지털화 등 매체변환의 방법으로 수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1992년 ‘중국 유출 한국 문화재 소장 조사 및 업무협약’을 위하여 중국국가도서관, 북경대학도서관, 사회과학도서관 등 3개 기관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96년 북경대학 소장 28종 140책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입수되었고, 2005년에는 대만국가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 조사가 이루어져 43종 205책이 역시 마이크로필름으로 수집되었다.²⁾ 중국국가도서관의 경우는 1995년 94종 410책에 대한 자료 영인 회신을 국가도서관측으로부터 받았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보류가 된 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인 2013년 중국국가도서관 대표단의 방문으로 인해 조사가 재개되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국가도서관 본관과 고적관에 소장된 선본과 일반고서(중국에서는 보통본이라 함)의 서지조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³⁾ 선본 중에서 『菊壺筆話』 등 28종 125책이 2018년 디지털파일로 수집되었다. 그러나 중국 소재 한국 고문헌 소장기관 중 남경도서관, 요녕성도서관 등은 일부 고문헌에 대해서 서지조사만 이루어졌다.⁴⁾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18년과 2019년 모두 2차⁵⁾에 걸쳐 실시한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조사의 결과이며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의 원 소장자와 그들의 수집 경위, 그리고 한국 고문헌 자료의 서지적, 자료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해은, “국립중앙도서관 국외소재 고문헌 수집사업의 성과와 과제,”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수집 성과와 과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9), 73.

2) 이해은(2009), 78.

3) 중국국가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조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선본과 일반고서를 포함하여 314종 1,658책 완료된 상태임.

4) 남경도서관의 경우 2014년 『건륭지장』 등 52종 250책, 요녕성도서관은 2017년 『동국이상국집』 등 80종 120책에 대한 서지조사(자세한 사항은 봉성기·김효경, “중국 요녕성도서관 소장 한국본 장서와 이나바 이와키치컬렉션에 관한 고찰,” 『고전적』 13(2018.7), 39-49. 참조)가 이루어져 현재 한국고전적종합목록에서 자세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이외에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10년 운남대학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124종 670책(국립문화재연구소,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중국 운남대학 도서관 소장 한국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2014년에 廈門대학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65종 424책(국외소재문화재단, 『중국 푸단대학도서관 소장 한국문화재』 (서울: 국외소재문화재단, 2015)), 상해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193종 1,320책(국외소재문화재단, 『중국 상하이도서관 소장 한국문화재』 (서울: 국외소재문화재단, 2015))을 서지 조사하였다.

5) 1차 조사 2018.3.20. ~ 3.24, 2차 조사 2019.6.11. ~ 6.15.

2.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의 수집

2.1 절강도서관의 연혁

절강도서관은 중국 항주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절강지역 省도서관이다. 1900년 항주 내 東城講舍 옛 터에 ‘杭州藏書樓’를 창설하였다. 1903년에 항주장서루를 확장하여 ‘浙江藏書樓’라 바꾸고, 大方伯里라는 곳을 매입하여 건물을 짓고 항주장서루에 있던 책을 이곳으로 옮겼다. 1909년 절강장서루를 다시 확충하면서 ‘浙江圖書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12년 ‘孤山館舍’를 준공하여 이를 總館으로 하고 원래 대방백리의 관사는 분관으로 하였다. 1911년에 浙江省 諮議局은 文瀾閣⁶⁾에 소장되어 있던 『四庫全書』를 절강도서관으로 귀속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한편, 1909년과 1931년 사이에는 도서관의 이름이 ‘浙江圖書館’, ‘浙江省立圖書館’, ‘浙江公立圖書館’ 등 여러 차례 바뀌었다가 1931년에 大學路 관사의 이름을 ‘절강도서관’으로 명명하였다.

1932년 대학로에 있던 관사를 총관으로 하고, 원래 고산관사는 ‘孤山分館’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대방백리에 있던 관사는 ‘新民分館’이라고 불렀다.



<그림 1> 현재 고산분관 모습(외부 및 내부)

1937년 ‘七七事變’⁷⁾이 일어난 이후 절강도서관 소장 文瀾閣 『사고전서』를 비롯해서 선본을 항주

- 6) 문란각은 항주 西湖 孤山 남쪽 기슭에 위치해 있는 서고로, 터는 현재 절강성 박물관 내이다. 청나라 乾隆帝 때인 1782년에 건립되었다. 『四庫全書』를 수장하기 위하여 건립한 7개의 四庫全書樓(소위 南北七閣) 가운데 하나로, 전장[鎮江] 진산사[金山寺]의 文宗閣과 양저우[揚州] 다관당[大觀堂]의 文匯閣과 더불어 江浙三閣이라 불린다. 光緒帝 때인 1880년에 재건되었고, 1955년과 1981년 2차례에 걸쳐 복구되었다. 문종각과 문회각 『사고전서』는 태평천국기간에 훼손되었다. 문란각은 1861년 태평천군이 항주를 공격하여 서고가 훼손되고 책(『사고전서』)은 일실되었으나, 훗날 항주의 유명한 장서가 丁丙·丁申 형제에 의하여 세 차례에 걸쳐 원래 모습으로 복원이 되었다. 항일 전쟁 시기에 항주에서 귀양으로 옮겨졌고, 1944년에 다시 중경으로 갔다가 1946년 5월에 항주로 다시 돌아와 현재 절강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장미경, 『중국고대장서문화』 (서울: 차이나하우스, 2017), 54.).
- 7) 칠칠사변은 루거우차오사변(盧溝橋事變) 또는 칠칠루거우차오사변(七七盧溝橋事變)이라고도 불리며 1937년

의 인근 지역인 富陽, 建德과 멀리는 貴陽, 重慶 등지로 옮겼다가 1946년에 다시 항주로 복귀하였다.

칠칠 사변으로 대학로에 있던 총관이 무너져서 고산분관을 총관으로 하였고, 1947년 대학로관을 수리하여 분관으로 하였다. 이후 문화대혁명 시기에 잠시 업무가 중단되었지만 1970년에 다시 개방하였다.

현재 절강도서관의 館址는 모두 3곳이다. 曙光路에 있는 총관과 孤山路에 있는 고산분관, 마지막으로 湖州 南潯鎮에 있는 嘉業藏書樓이다. ‘가업장서루’는 1920년에 짓기 시작하여 1924년에 완공한 장서각이다. 1951년 11월에 장서루 주인인 유승간(劉承幹, 1881-1963)이 절강도서관에 다음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다.

書樓와 사방 빈 땅, 藏書, 書版, 그와 관련된 각종 설비 등을 귀관(절강도서관을 말함)에 기증하여 영구히 보존하기를 바랍니다.⁸⁾

이처럼, 유승간의 기증으로 인해 가업장서루가 절강도서관의 한 부분이 되었다. 1981년 省級 文物보호로 지정되었고, 1984년에 절강성에서 전면 수리를 하여 현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⁹⁾

2.2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의 수집 경위

중국 명청대에 많은 장서가들이 중국 江南¹⁰⁾에서 배출되었다.¹¹⁾ 특히 절강성과 강소성 지역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며 교육이 발달하였고, 학술적 분위기가 농후하며 대대로 이름난 名士가 많이 배출되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절강지역은 남송이래로 중국 동남지역 문화발달 지역으로 인문환경이 조성되었고 출판업이 흥성하여 송대 이래 중요한 출판중심지로 자리잡았다. 명청대에는

7월 7일 당시 북평(北平: 북경)의 루거우차오(盧溝橋)에서 발생한 중일군사충돌로 일본이 이 일을 계기로 전면적인 중국침공에 나서 중국의 8년간의 대일항전 기점이 되었다.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52233&cid=43792&categoryId=51740>)

8) 절강성도서관지편찬위원회, “愿將書樓與四周空地并藏書, 書版連同各項設備等悉以捐獻與貴館永久保存,” 『浙江省圖書館志』 (항주: 중국서적출판사, 1994), 84.

9) 절강성도서관지편찬위원회(1994), 81-84.

10) ‘강남’은 長江 중하류 지역 문화권역을 통칭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그 하류 삼각주 지역의 江蘇省·浙江省 및 安徽省 일부에 형성된 ‘吳越文化’ 지역을 의미한다. 이 지역은 송대 이후 줄곧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지만, 특히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예술문학 분야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였다(장미경, “명청대 강남지역 장서가의 문화적 역할,” 『중국학논총』 제21호(2006. 6), 358.).

11) 강소·절강성 역대장서가 통계

	先秦 兩漢	魏晉 南北朝	隋唐 五代	宋	金元	明	清	民國	總計
江蘇		1	4	22	15	160	290		492
浙江		4		33	15	80	267		399

(장미경(2006), 360. 원출처는 傅璇琮, 『中國藏書通史』 (寧波: 寧波出版社, 2001), 818.)

문화와 학술의 중심지로서 黃宗羲(1610-1695)를 대표로하는 浙東史學이 성행하였다.¹²⁾ 특히 錢塘江 유역¹³⁾은 많은 장서가가 배출되었는데, 이곳 역시 경제가 발달하였고 학문적 분위기가 농후했던 곳으로서 杭州·紹興·寧波·嘉興·海寧 등 몇몇 도시는 私家藏書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¹⁴⁾

이처럼 절강지역은 중국 내에서도 대단히 장서문화가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인 만큼 장서 문화 형성의 시기도 매우 이르다. 문헌 기록에 의하면 춘추 말기 노나라 哀公 5년(기원전 490) 무렵 越王 句踐이 전적을 誦讀하기 위해 石室을 세워 ‘石室藏書’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남북조 시대에는 절강서 武康 출신인 沈約(441-513)이라는 장서가는 자신의 장서가 2만권이 넘었는데, 당시 國庫의 장서가 2만 권이 되지 않았기에, 당시 사람들이 그를 ‘京師莫比’라고 일컬었다고 한다. 송대에 이르러서는 이 지역 장서가가 60家が 넘었다. 『宋代藏書家考』¹⁵⁾라는 책에 의하면 “송대 가장 저명한 128명의 장서가 중 절강지역 출신자는 30명으로, 당시 전국에서 가장 으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¹⁶⁾

또한 金天游가 편찬한 『中國藏書家考略』¹⁷⁾을 보면, 이 책에 수록된 장서가는 모두 760명인데, 그 중 절강지역 장서가는 200여명이다. 吳晗이 편찬한 『浙江藏書家史略』¹⁸⁾에 수록된 899명의 장서가 중 절강지역 장서가는 399명이다.¹⁹⁾ 물론 앞서 언급한 두 책에서 절강지역 장서가가 중복되어 수록되어 있지만, 절강 지역 장서가의 수는 중국 전체 장서가의 수와 비교해 봤을 때 두드러지게 많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

한편, 절강지역에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藏書樓가 4곳이 있다. 앞서 오함이 편찬한 『절강장서가사략』에 제시된 통계에 의하면, 중국 내 유명한 장서루는 180곳 정도인데, 그중 절강지역이 4곳이 있다. 寧波의 ‘天一閣’, 杭州의 ‘文瀾閣’, 湖州의 ‘嘉業堂’, 瑞安의 ‘玉海樓’가 그것이다. 또한 절강지역에는 이 4곳 못지않게 명청대 형성된 손에 꼽히는 장서루, 즉 영파의 ‘五桂樓’, 항주의 ‘八千卷樓’, 호주의 ‘皕宋樓’도 있다.²⁰⁾

절강도서관의 고문헌 장서 형성의 큰 물줄기는 바로 절강지역 장서가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절강도서관이 중국 강남지역 도서관 중 3대(남경, 상해, 절강) 鼎足 중 하나로 일컬어지고, 또한 전국 내 4대 고문헌 소장처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절강지역 장서가들의 기증이 아니면 불가능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 浙東學派(중국 절강지역 일대 학자들에 의해 형성된 학파로 송대에 기원해 명청대까지 이어짐)의 학자 가운데 대다수가 장서가이고, 학파의 형성에 절동지역의 풍부한 장서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장미경(2006), 364.).

13) 절강성 최대의 河流.

14) 장미경(2006), 364.

15) 潘美月, 『宋代藏書家考』(대만: 대만학회출판사, 1980).

16) 杭州圖書館, 『浙江藏書家考略』(상해: 상해인민출판사, 2013), 面次不詳.

17) 金天游, 『中國藏書家考略』(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18) 吳晗, 『浙江藏書家史略』(北京: 中華書局, 1881).

19) 杭州圖書館(2013), 面次不詳. 이 내용은 주석 12번의 표와 일치한다.

20) 杭州圖書館(2013), 面次不詳.

절강도서관 고문헌 장서형성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첫 번째 시기는 건국 전 절강도서관 고산관사가 낙성된 이후이다. 1935년에 절강 항주사람으로 청대 장서가인 孫宗濂(1720-?)²¹⁾의 壽松堂 장서 600여 종 2,000여 책이 절강도서관에 기증되었다. 그의 기증 장서 중 송대 목판본인 『新刊名臣碑傳琬琰之集』, 『武林坊巷志』 등은 희귀 고문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²²⁾ 이 시기에 수송당 이외에도 1931년 章畵(1879-1931)²³⁾의 百聯樓, 1934년 莊祖基(1843-1890)²⁴⁾의 蘭味軒 소장 장서도 절강도서관으로 기증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고문헌과 함께 많은 수량의 版片(판목을 말하는 것을 추정됨) 기증도 이루어졌다. 1922년에 振綺堂 주인 汪遠孫(1789-1835)²⁵⁾의 후손 汪玉年이 先世 刊版 32종 5,761塊를, 1923년과 33년 두 차례에 걸쳐 胡宗懋²⁶⁾가 家刻 『金華叢書』, 『續金華叢書』 판권 127종 13,981과, 1933년에 丁丙²⁷⁾의 후손 丁序가 『八千卷樓』²⁸⁾ 전부 刻版 18,400과, 같은 해 王修(1898-1936)가 가각 書版 519과, 吳興 張石銘²⁹⁾이 輯刊한 『適園叢書』 판권 8,187과 등을 기증하였다.³⁰⁾

두 번째 시기는 신중국 성립이후로, 절강도서관 고문헌 장서수량이 현격히 증대하고 수준이 높아진 때이다. 절강지역 유명한 근대 장서가인 王修의 詒莊樓를 비롯해서 劉承幹의 嘉業堂, 李氏의 萱蔭樓,³¹⁾ 蔣光燾³²⁾의 衍芬草堂, 黃澄量³³⁾의 五桂樓, 連氏의 枕湖樓, 余紹宋³⁴⁾의 寒柯堂, 李氏의

21) 자는 栗枕, 호는 隱谷. 절강 紹興 祁氏의 ‘澹生堂’의 장서, 蔣升瀛의 장서를 수집하였으며, 특히 송대 乾道本 『臨安志』 3권 등 宋元 선본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다. 1773년에 아들 孫仰曾(1751-?, 자는 虛白, 호는 景高)이 家藏 231종을 국가에 진헌하였는데, 그 중에 송대 건도본 『임안지』 3권도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서목도 편찬하였다(<https://baike.baidu.com> 내용 참조).

22) 李性忠, “浙江圖書館捐贈史述略,” 『圖書館研究與工作』 (2007. 4期), 3.

23) 저명한 사학자이자 절강대학 교수역임. 자는 厥生. 아들 章毓이 부친의 유언에 따라 부친이 사망(1931년 5월)하던 그해 11월 27일에 부친의 장서 20613책을 절강도서관에 기증하였다(趙長海, “章畵天行草堂藏書捐贈史事考,” 『天一閣文叢』 12(2015)).

24) 청말 장서가. 자는 守齋, 호는 印兆. 별호는 蘭味軒主. 절강 秀水에 거주하였다. 장서인은 “毗陵莊祖基守齋氏藏書印”, “秀水莊氏蘭味軒收藏印”, “莊印兆印” 등이 있다(<https://baike.baidu.com> 내용 참조). 그의 장서는 1934년에 손자 莊澤宣이 27상자를 절강도서관으로 기증하였다(李性忠(2007), 3.).

25) 청대 관리이자 학자. 절강 錢塘 사람. 자는 久也. 호는 小米, 借閑漫士. 先世 장서의 장소가 ‘진기당’임. 진기당 장서는 汪憲에서 시작되어 汪日璐, 汪汝璫, 汪誠을 거쳐 왕원손에 이르렀다고 함(<https://baike.baidu.com> 내용 참조).

26) 생몰년 미상. 직관은 永康. 주요 저서로 『金華經籍志』가 있음(<https://baike.baidu.com> 내용 참조).

27) 1832-1899. 청말 저명한 장서가. 錢塘(지금의 항주) 사람. 자는 嘉魚. 호는 松生. 만년의 호는 松存.

28) 청말 항주지역에서 매우 영향력이 큰 장서루 중 하나로, 韶宋樓·鐵金銅劍樓·海源閣과 함께 4대 장서루로 불린다. 팔친권루의 창시자는 丁國典(1770-1825)이며, 이 장서루의 이름을 더욱 빛낸 사람은 丁丙·丁申 형제이다(장미경(2017), 85.).

29) 1871-1927. 절강성 湖州 南潯 사람. 이름은 鈞衡. 자는 石銘. 適園主人이라고도 불림. 청말 민국초 4대 장서가 중 하나로 불려짐. 고문헌뿐만 아니라 金石碑刻和奇石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수집하였다(<https://baike.baidu.com> 내용 참조).

30) 李性忠(2007), 3.

31) 절강지역 寧波 鄞縣李氏의 장서루이다. 환음루 장서루는 원래 같은 지역 蔡氏의 장서루인 墨海樓 장서를 인수하여 형성된 것이다. 소장 장서 중에서는 명대 판각된 海內孤本 『天工開物』이 가장 알려진 자료이다 (<http://www.baike.com> 제공 자료 참조). 환음루 장서는 1951년 5월에 절강도서관에 3만여 책이 기증되었다(李性忠(2007), 3.).

丹井書屋, 陳氏의 石墨樓,³⁵⁾ 朱建新,³⁶⁾ 朱公束의 四明樓 등의 장서가 절강도서관으로 기증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소위 문화대혁명 이후 기증받은 고문헌을 말한다. 이 당시 기증한 주요 장서가로는 徐紹楨³⁷⁾의 延佇閣, 陶承杏,³⁸⁾ 馬浮,³⁹⁾ 徐行恭,⁴⁰⁾ 절강대학 등이다.⁴¹⁾

이러한 수집을 통해 고문헌 장서가 형성된 절강도서관은 文瀾閣 『史庫全書』를 비롯해서 선본이 약 6,600부가 소장되어 있다. 그 중 당나라 寫經 5종, 송원 刻本 66부, 명청 각본 3,730여 부, 원고본 590여 부, 명청 抄本 약 1,900부가 있다. 그리고 조선본 216부, 일본본 124부, 월남본 3부가 소장되어 있다.⁴²⁾

그러면 이러한 한국 고문헌 216부⁴³⁾는 어떻게 수집된 것일까? 앞서 절강도서관은 절강지역 장서가들의 기증에 의해서 자료가 수집되었음을 밝혔다. 한국 고문헌 역시 절강지역 장서가들이 기증한 자료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 고문헌의 주요 소장가로는 왕수와 유승간, 절강대학교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왕수는 다른 소장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절대적인 한국본 소장가였다.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총 218종(본관 선본 217종, 고산분관 일반고서 1종 포함) 중 왕수의 소장 한국본은 모두 67종이다(<표 1> 참조). 이 수량은 전체 한국 고문헌 중 거의 1/3에 해당된다. 절강도서관의 고문헌 기증사를 보면, 왕수는 1933년 10월에 자신의 家刻 서판을 기증하였고, 거의 20년 뒤인 1952년 4월에 그의 후손 王新將이 선조의 자료를 모두 기증하였다.⁴⁴⁾ 즉 한국 고문헌은

32) 1825-1892. 청대 저명한 장서가. 자는 繩武, 호는 寅昉. 또는 吟舫, 敬齋로도 불린다. 절강지역 海寧 硤石鎮 사람이다. ‘연분초당’은 그의 조부인 蔣開基가 지은 장서루로, ‘淵芬草堂’이라고도 한다. 조부에서부터 광광옥 당대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수집만권의 장서를 수집하였다(<https://baike.baidu.com> 내용 참조).

33) 생몰년 미상. 그는 절강 영파 사람이다. 자는 式釜, 호는 石泉. 오계루는 절강 余姚縣에 있는 것으로, 1807년에 세워졌으며, 浙東의 제2의 장서루로 일컬어지는 곳이다.

34) 1882-1949. 절강 龍游縣 사람. 자는 越園, 호는 覺庵, 覺道人, 映碧主人이며, 49세 이후에 寒柯라는 호를 지었다. 근대 법학자이면서 사학자, 감상가, 서화가로 알려져 있다. 평생을 금석서화와 지방지 편찬에 힘을 쏟았다. 한가당은 그가 1930년부터 1931년까지 지은 별서의 이름(<https://baike.baidu.com> 내용 참조).

35) 1950년 11월에 절강 영파시 象山縣 陳慶麟이 부친 陳漢章(1864-1938. 자는 云從. 호는 倬云. 청말 유명한 사학자이자 경학자. 국학대사로 불림. 절강성 영파시 象山縣 출신)이 소장하고 있던 836책, 100쪽의 금석각본을 기증하였다. 그 중에는 부친의 수고본 『綴學堂叢稿』도 포함되어 있었다(李性忠(2007), 3.).

36) 1905-1967. 절강 海寧 사람. 자는 劍心. 금석학자로 알려져 있다. 1952년 6월에 그의 장서 1만 여 책이 절강도서관에 기증되었다. 그 중에는 명대 사본 『明穆宗實錄』 70책도 포함되어 있다(李性忠(2007), 3.).

37) 1861-1936. 자는 古卿. 원적은 절강 錢塘(지금의 항주) 사람.

38) 생몰년 미상. 항주 지역 장서가로 알려져 있다. 문화대혁명 이전에 이미 장서가 6만여 책이 넘었다. 특히 문화대혁명 중 대부분의 장서를 절강성도서관에 기증하였다(何力邁, “走進藏書家的世界--訪杭城藏書家陶承杏先生-,” 『浙江檔案』 (1994. 1期), 21-22.).

39) 1883-1967. 절강 會稽(今浙江) 紹興사람. 자는 一佛, 一浮. 호는 湛翁. 별호는 鐫翁, 鐫叟, 鐫戲老人.

40) 1893-1988. 수집가. 1980년 5000책을 절강도서관에 기증하였다(李性忠(2007), 3.).

41) 杭州圖書館(2013), 面次不詳.

42) 절강성도서관지편찬위원회(1994), 84.

43) 1994년 간행된 『절강성도서관지』에는 한국 고문헌인 216부라고 되어 있는데, 2002년 절강도서관에서 간행한 『절강도서관 고적선본서목』에는 한국 고문헌 220종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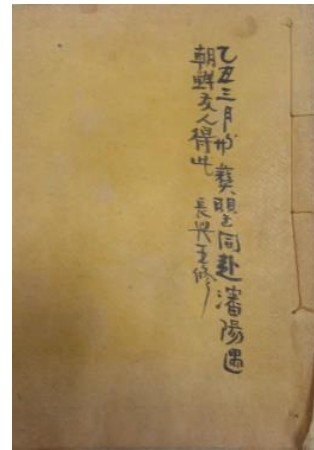
44) 李性忠(2007), 3.

1952년 2차 기증할 때 절강도서관으로 입고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왕수(王修, 1898-1936)⁴⁵⁾는 부인 온도(溫甸, 1898-1930)⁴⁶⁾와 함께 서화, 詩詞에 뛰어났으며, 특히 고문헌 수집을 좋아하여 金石 보기를 생명같이 하였다고 전해진다. 왕수의 고향인 長興縣 城雉城鎮 仁壽堂에 고문헌이 매우 많았는데, 1932년(민국 21) 왕수가 고향에 와서 인수당에서 늦은 밤까지 책을 읽다가 失火로 인해 인수당이 모두 불에 타버린 일도 있었다. 왕수의 장서루는 ‘詒莊樓’라 불리는데, 이 장서루는 원래 항주 南山路 錢王祠 일대에 있었다. ‘이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연유는 왕수가 1922년 北平(지금의 북경을 말함) 재정부 직원으로 있을 때 유리창에 가서 명대 각본 『古蒙莊子』를 구입하였는데, 이 책이 그의 7대조께서 새긴 것임을 알고, 장서루를 짓고 그 이름을 ‘이장루’라 붙였다고 한다.⁴⁷⁾

왕수와 부인 온도는 북평에 있을 때, 자주 海王村에 있는 琉璃廠, 隆福寺 등에 있는 고서점에 고문헌을 보러 다녔다. 때로 좋은 책을 만나 살 여력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책을 빌려와서 밤새 베끼고 다시 돌려주기도 하였다.⁴⁸⁾ 명대 이전 刊本, 명문가의 抄校本, 일본, 高麗 刻本 등이 있으면 귀중하다 생각하여 수집을 하였다. 왕수가 송·원·명대 판본, 抄本, 稿本 이외에도 일본본, 조선본도 많은 양을 소장하게 된 이유도 바로 고서점을 다니면서 수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왕수가 조선본을 모두 고서점을 통해서만 수집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杜律分韻』(朝144)의 표지 아래 다음 글이 묵서되어 있다.



<그림 2> 『두율분운』의 표지 묵서 기록

을축(1925) 3월에 부인 이앵과 함께 심양에 가서 조선 벗을 만나 이 책을 얻었다. 장흥 왕수⁴⁹⁾

위 묵서 기록을 통해 보건대, 왕수가 한국 고서를 직접 조선인을 통해 수집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5) 자는 季歡, 修之, 云藍이고, 호는 양암(楊龔)이다. 절강 長興사람이다. 일본 동경대 유학을 했으며, 귀국 후 북경정부 재정부 僉事를 역임하였다. 왕가인쇄소를 창설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楊庵集』 등 10종이 있다(顧志興, 『浙江藏書史』(杭州: 杭州出版社, 2008), 561.).

46) 자는 이앵(彝罍). 그녀의 선조는 廣東 梅縣 사람인데, 이후 관직 때문에 吳興(지금의 湖州)에 왔다가 湖州 산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호주로 이사를 하였다. 1916년 왕수와 결혼을 하였다. 저서로는 『彝罍詞』가 있으며, 『朝鮮藝文志』를 편집하였다(顧志興(2008), 562).

47) 顧志興(2008), 562.

48) 顧志興(2008), 562.

49) 乙丑三月 兼彝罍同赴瀋陽 遇朝鮮友人 得此 長興王修.

<표 1> 왕수 소장 한국 고문헌 목록

청구기호	서명	장서인
朝4	喪禮備要	長興王氏詒莊樓藏
朝6	增補四禮便覽	長興王氏詒莊樓藏
朝7	四禮纂說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8	全韻玉篇	長興王氏詒莊樓藏
朝20	全韻玉篇	長興王氏詒莊樓藏
朝22	御定奎章全韻	長興王氏詒莊樓藏
朝23	御定奎章全韻	長興王氏詒莊樓藏, 詒莊樓藏書印
朝26	華東正音通釋韻考	長興王氏詒莊樓藏
朝28	三韻聲彙	長興王氏詒莊樓藏
朝29	紀年便覽	長興王氏詒莊樓藏
朝30	東國通鑑	詒莊樓藏書印, 長興王氏詒莊樓藏, 詒莊樓
朝34	東國史略	長興王氏詒莊樓藏, 長興王修考藏善本
朝36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考	長興王氏詒莊樓藏
朝41	中京科譜	楊弇, 長興王氏詒莊樓藏, 溫甸
朝42	陶山及門諸賢錄	長興王氏詒莊樓藏
朝43	三學士傳	長興王氏詒莊樓藏
朝45	崇禎紀元後五戊子年司馬榜目	王溫甸, 彝罍, 長興王氏詒莊樓藏, 王季歡
朝57	百拙齋年譜	長興王氏詒莊樓藏
朝58	愛日堂伸復錄, 附愛日堂事跡	長興王氏詒莊樓藏, 王修鑒藏書畫
朝59	思復齋先生實記, 附鷗號書室記	王修之印, 王修鑒藏書畫, 王溫甸, 彝罍
朝70	濬源世系	長興王氏詒莊樓藏
朝83	通文館志	長興王氏詒莊樓藏, 詒莊樓藏書印
朝84	牧民心鑑	長興王氏詒莊樓藏
朝85	大典會通	長興王氏詒莊樓藏
朝86	銀臺便攷	詒莊樓, 長興王氏詒莊樓藏, 長興王氏季歡彝罍夫婦印記
朝90	御定洪翼靖公奏藁	長興王氏詒莊樓藏, 長興王氏季歡彝罍夫婦印記
朝97	增修無冤錄大全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10	兩賢傳心錄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13	明心寶鑑抄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29	濟衆新編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30	天文類抄	詒莊樓, 浙江圖書館珍藏善本, 王修之印, 王季歡, 王溫甸
朝137	句解南華真經	長興王氏詒莊樓藏, 長興王氏校藏經籍碑版印記
朝138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彝罍, 王溫甸, 浙江圖書館珍藏善本,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44	杜律分韻	王季歡, 詒莊樓藏書印, 王修鑒藏書畫, 溫甸
朝146	永嘉三怡集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52	桂苑筆耕集	長興王氏詒莊樓藏, 詒莊樓藏書印, 王修之印, 王修鑒藏書畫, 楊弇秘笈
朝153	桂苑筆耕集	楊弇秘笈, 王修之印, 詒莊樓藏書印, 浙江圖書館珍藏善本, 彝罍, 王溫甸
朝161	退溪先生文集	長興王氏季歡彝罍夫婦印記, 長興王氏詒莊樓藏

청구기호	서 명	장서인
朝163	鶴峰先生文集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64	松溪集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65	晦齋先生文集	王修,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66	河西先生全集	長興王氏詒莊樓藏, 楊弇秘笈, 王修之印, 溫甸, 詒莊樓藏書印
朝167	玉峰別集	王修鑒藏書畫, 王修, 溫甸, 浙江圖書館珍藏善本, 詒莊樓藏書印
朝168	孤潭逸稿	長興王氏詒莊樓藏, 長興王修考藏鄉先哲遺著錄
朝170	坡谷遺集	長興王氏季歡彝罍夫婦印記,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72	一齋先生集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75	栢嚴先生文集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76	南川先生文集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77	晚沙稿	長興王氏季歡彝罍夫婦印記,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78	潛溪李先生遺稿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79	江左先生文集	王修鑒藏書畫, 詒莊樓藏書印,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81	誠齋先生遺稿	長興王氏詒莊樓藏, 長興王修考藏善本
朝182	芑亭先生文集	王修, 溫甸, 楊弇秘笈, 詒莊樓藏書印
朝183	雲山文集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84	臥隱先生文集	長興王氏詒莊樓藏, 詒莊樓藏書印
朝185	松湖集	王修之印, 詒莊樓藏書印, 王季歡, 王溫甸, 彝罍, 楊弇秘笈, 王修, 溫甸
朝187	海隱先生遺稿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88	豐山世稿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89	平庵先生文集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96	悔軒集	長興王氏季歡彝罍夫婦印記,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97	櫟菴集	詒莊樓藏書印, 王修鑒藏書畫, 溫甸, 彝罍, 王溫甸
朝198	隨聞錄: (并)農叟遺稿	長興王氏詒莊樓藏
朝199	西河先生集	長興王氏詒莊樓藏
朝205	歸恩堂集	王修之印, 溫甸, 長興王修二十牽精神所積, 楊弇, 王季歡, 楊弇秘笈, 彝罍, 王溫甸
朝206	西原世稿	長興王氏藏書, 長興王氏詒莊樓藏, 長興王氏季歡彝罍夫婦印記
朝207	韓客巾衍集	長興王氏詒莊樓藏
朝215	海居齋詩鈔	王修之印, 長興王氏藏書, 長興王修考藏善本
총계	67종	

다음 소장자는 중국 근대 저명한 장서가이자 가업당 장서루⁵⁰⁾(<그림 4> 참조)의 주인인 유승

50) 유승간은 1920년(민국 9)에 가업당을 짓기 시작하여 1924년에 완공하였다. 당시 금 12만 냥이 들었다고 한다. 장서루의 이름을 ‘嘉業으로 제명한 것은 그가 1914년 光緒 황제 능 식수사업에 많은 돈을 기부를 하였기에 宣統 황제가 “欽若嘉業”이라는 편액을 하사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장서루 이름을 ‘가업장서루’라고 지었다. 가업당 전성기에 수집된 장서의 수량은 18만여 책 60만 권에 이르렀다고 한다. 주로 구입에 의해 장서가 형성되었는데, 저명한 장서 舊家 영파의 抱經樓, 貴州 獨山 莫友芝의 影山草堂, 仁和 朱學勤의 結一廬, 豐順丁氏의 持靜齋, 太倉繆氏의 東倉西庫 등의 장서를 사들였다(顧志興(2008), 547-549.).

간(劉承幹, 1881-1963)⁵¹⁾이다(<그림 3> 참조). 유승간이 소장하였던 한국 고문헌은 3종으로 확인된다(<표 2> 참조). 앞 장에서도 말을 하였듯이, 유승간은 1951년에 가업장서루를 절강도서관으로 기증하였다. 한국 고문헌에 대한 유승간의 소장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본을 어떻게 수집하였는지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찾아낼 수 없었다. 다만 가업당 장서가 경제적 원인과 일본 침략 전쟁으로 인하여 유실되거나 팔리거나 기증 등에 의해 현재 절강도서관을 비롯해서 대만중앙도서관, 복단대학도서관, 절강대학도서관, 중국국가도서관, 대련도서관, 홍콩 대학 馮平山圖書館, 마카오 何東圖書館, 미국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등에 흩어져 소장⁵²⁾되어 있기 때문에 유승간의 장서인이 찍힌 한국 고문헌이 절강도서관 이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 유승간 사진과 가업당 내 “흙약가업” 현판



<그림 4> 가업장서루 정문 모습

<표 2> 유승간 소장 한국 고문헌 목록

청구기호	서 명	장서인
朝1	詩	劉承幹字貞一號翰怡, 吳興劉氏嘉業堂藏書印, 承幹鈐記, 劉翰怡印
朝79	史記英選	嘉蔭簪藏書印, 吳興劉氏嘉業堂藏書印, 劉承幹字貞一號翰怡
朝147	唐詩始音輯註. 唐詩正音輯註. 唐詩遺響輯註	劉承幹字貞一號翰怡, 吳興劉氏嘉業堂藏書印, 北平劉氏, 劉氏
총계	3종	

마지막으로 소장자가 절강대학인 경우이다. 앞서 절강도서관 고문헌 수집사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절강대학 고문헌이 절강도서관으로 들어온 것은 세 번째 시기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절강도서관으로 유입되게 된 과정은 알 수 없다. 절강대학 소장 한국 고문헌은 모두 12종으로 확인된다.

51) 청대 오홍 南潯(지금 호주시) 사람. 자는 貞一, 호는 翰怡.

52) 周欣平, “中華書本文化的數位保存及發揚: 柏克萊經驗,” 『雲世紀下的新傳奇』(臺灣: 古籍加值與詮釋 國際研討會論文集, 2018), 27.

선본이 11종이고, 일반고서가 1종이다(<표 3> 참조). 절강대학 소장본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절강대학 장서인 즉 ‘國立浙江大學藏書’, ‘國立英士大學藏書’ 2종의 장서인을 통해서이다. 1928년 4월에 國立第三中山大學이 中華民國大學院浙江大學(簡稱 浙江大學)으로 개칭이 되고, 같은 해 7월에 학교 이름(절강대학) 앞에 “國立” 두 글자를 넣어 “국립절강대학”으로 학교 이름이 되었다.⁵³⁾ 따라서 한국본 고서에 찍힌 ‘국립절강대학장서’ 인장은 1928년 7월 이후에 찍힌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립영사대학의 경우는 1928년에 만들어졌으나 1929년 민주혁명가인 陳英士(1878-1916)를 기념하기 위해 浙江省立英士大學으로 개칭하였고, 1943년에 다시 국립영사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었다.⁵⁴⁾ 1949년 8월에 절강대학으로 병합이 되었는데, 이 때 국립영사대학 소장 도서 42,939책도 함께 절강대학으로 유입되었다.⁵⁵⁾ 따라서 ‘國立英士大學藏書’ 인장은 1943년 이후에 찍힌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3> 절강대학 소장 한국 고문헌 목록

청구기호	서 명	장서인
朝81	漢雋	國立浙江大學藏書, 國立英士大學藏書
朝87	講官論	
朝93	陸奏約選	
朝112	兩賢傳心錄	
朝118	御製自省篇	
朝119	五倫行實圖	
朝120	新編彙語	
朝136	新谷隨纂	
朝140	新編古今事文類聚	
朝143	名世文宗	
朝156	宋大家蘇文忠公文鈔	
普352.59/1052	演圖說輯要	國立浙江大學藏書
총계	12종(선본 11종, 일반고서 1종)	

3. 한국 고문헌의 서지적 분석

절강도서관 본관 지하1층에 있는 ‘古籍善本特藏閱覽室’⁵⁶⁾은 고문헌을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는 자료실이며 이곳에 대부분의 한국 고문헌이 소장되어 있다. 2002년 절강도서관에서 간행한 『浙江圖

53) 절강대학교 도서관 고서열람실 내 ‘追尋歷史的足跡-浙江大學藏書印展’ 전시 캡션 참조.

54) <https://baike.baidu.com> 내용 참조.

55) 顧志興(2008), 192.

56)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가능하며, 고산분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관.

書館古籍善本書目』⁵⁷⁾에 선본 한국 고문헌 목록이 經史子集 四部の 순서로 220종 수록되어 있다. 청구기호는 별도로 기입되어 있지 않으나 열람실에 비치되어 있는 목록집에는 수기로 자료별 청구기호가 ‘朝1’에서 ‘朝220’까지 기입되어 있다. 실물 조사 결과 그 중 ‘朝10’과 ‘朝17’은 중국본으로 판명되었고, ‘朝12’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였다. 따라서 실제 선본 한국 고문헌은 217종 1,118책 소장되어 있다.

또한 고문헌을 관리하는 부서인 古籍部 사무실이 위치한 孤山分官에도 한국 고문헌이 소량 소장되어 있어 확인해 본 결과, 1종을 제외하고 다 중국 고문헌이었다. 따라서 고산분관에 소장된 일반고서 1종을 포함하여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은 총 218종 1,120책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절에서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의 서지적 특징을 주제별, 간행시기별, 판본별로 분석하여 정리해 보았다.

3.1 주제별 현황

절강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고문헌을 전통적 분류법인 四部 분류에 의하여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經部가 25종 129책(11%), 史部 76종 270책(35%), 子部 42종 296책(19%), 集部가 75종 425책(34%)으로 사부와 집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부에는 소학류의 韻書·字書가, 사부에는 傳記類, 자부에는 儒家類와 醫家類, 집부에는 개인문집류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이를 각 부의 주제별 분포로 나타낸 것이 <표 4>이다. 이어서 부문별 주요 자료 및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1) 經部

경부에는 25종 129책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소학류의 韻書와 字書가 11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禮類) 7종이 소장되어 있다.

한자의 韻을 중심으로 분류해 놓은 중국의 운서를 조선에 실정에 맞게 편찬한 『華東正音通釋韻考』, 『御定奎章全韻』, 『三韻聲彙』 등 다수의 조선 운서와, 부수별로 글자들을 배열한 뒤에 각각의 글자에 대해 성조와 운의 순서를 명시한 『新編直音禮部玉編』, 조선후기 편찬된 『全韻玉篇』 등의 자서가 그것이다. 절반 이상의 운서와 자서에서 장서가 王修의 장서인인 ‘長興王氏詒莊樓藏’이 찍혀있는 것을 볼 때 왕수가 조선의 어학과 자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史部

사부는 집부와 더불어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부에는 76종 270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한국 고문헌 중 34%를 점하고 있다.

57) 浙江圖書館古籍部, 『浙江圖書館古籍善本書目』(杭州: 浙江教育出版社, 2002), 892-908.

<표 4>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주제별 분포

구분		種數	冊數	비율(중수기준)
經部	總經類	1	12	11%
	詩類	2	19	
	禮類	7	45	
	春秋類	1	3	
	四書類	2	32	
	小學類	12	18	
	소 계	25	129	
史部	編年類	3	28	35%
	紀事本末類	2	2	
	別史類	9	49	
	雜史類	3	5	
	抄史類	5	29	
	史表類	2	5	
	詔令奏議類	5	22	
	傳記類	30	62	
	系譜類	4	23	
	職官類	3	23	
	政法類	6	16	
	地理類	3	5	
	書誌類	1	1	
	소 계	76	270	
子部	總子類	1	19	19%
	儒家類	19	70	
	道家類	3	9	
	釋家類	1	1	
	兵家類	2	3	
	醫家類	6	108	
	雜家類	1	1	
	天文算法類	3	4	
	藝術類	1	1	
	譯學類	2	3	
	類書類	3	77	
	소 계	42	296	
集部	總集類	15	136	34%
	別集類	59	288	
	隨筆類	1	1	
	소 계	75	425	
합 계		218	1,120	100%

왕실과 개인의 傳記, 年譜, 實記, 功臣錄 등을 포함하고 있는 傳記類가 30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개인이 저술한 역사서들을 모은 別史類가 9종이 있다. 또한 文譜 3책, 武譜 2책, 蔭譜 3책을 모은 『三班八世譜』(朝69)와 국내 미소장의 『潭陽田氏世譜』(朝71) 등의 계보류도 4종 소장되어 있다.

가장 많은 전기류 자료를 보면, 折衝 李東遇에게 사급된 『奮武原從功臣錄券』(朝48)이 소장되어 있다. 영조 4년(1728)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인사들에게 사급된 공신녹권으로 ‘施命之寶’가 날인되어 있다. 또한 분무공신의 녹훈을 계기로 영조 4년(1728) 각 공신⁵⁸⁾ 및 공신의 자손들이 會盟하였을 때의 기록인 『二十一功臣會盟文』(朝40)도 함께 소장되어 있다.

그 밖에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權應銖(1546-1608)의 실기 『白雲齋忠毅公實記』(朝214), 宋時烈(1607-1689)의 일대기를 정리한 『尤菴先生事實記』(朝64), 尹拯(1629-1714)의 행적을 연대순으로 정리한 『明齋先生年譜』(朝63)와 金時傑(1653-1701)의 연보 『蘭谷先生年譜』(朝68) 등 조선중후기 문무신들의 행적을 기록한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3) 子部

자부에는 43종 296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언적, 이황, 이이 등 조선시대 대표적 학자 및 영·정조의 저술인 儒家類와 『동의보감』, 『제증신편』 등의 醫家類가 다수 소장되어 있다.

자부 가운데 주목할 만한 자료는 痘瘡, 즉 천연두에 관한 의서인 『瘡疹集』(朝124)이다. 『창진집』은 15세기 전반 세종이 內醫院에 모든 처방집을 수집케 하는 가운데 두창에 관한 것만을 따로 묶어 만든 것으로, 세조 때 책의 미비함을 內醫 任元濬(1423-1500) 등에게 교정, 보완하도록 하여 금속활자 을해자로 간행한 책이다. 上, 中, 下의 3권3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임진왜란을 거치며 망실된 의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⁵⁹⁾ 영인본을 제외하면 현재 중국 절강도서관 소장본이 유일하다.

서문은 임원준이 세조 3년(1457)에 저술하였고, 초간본은 적어도 세조 8년(1462) 이전에 간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존본 『창진집』은 을해자의 마멸과 보자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선조 6년(1573) 보주가 이루어지기 전인 16세기 전반의 간본으로 추정된다.⁶⁰⁾

서문이 있는 제1책 첫 면에 찍혀있는 인장을 살펴보면 절강도서관의 장서인인 ‘浙江圖書館珍藏善本’ 외에 ‘吉家氏藏’과 ‘稱意館藏書記’라는 인장이 날인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장서인의 주인은 일본 에도시대 초기까지 활동한 일본인 의사 요시다 소준(吉田宗恂, 1558-1610)이다. 그는 이안(意庵)이라 불린 의사이자, 에도 초기 유학자인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1561-1619)의 제자였으며, 아버지로부터 稱意館이라는 문고를 이어받은 장서가이기도 하였다. 그는 임진왜란 기간인 분로쿠(文祿, 1592-1595) 연간 말년부터 게이초(慶長, 1596-1614) 연간 전반에 걸쳐 목활자본, 목판본의

58) 조선 개국 이래 숙종 대까지의 開國, 定社, 佐命, 靖難, 佐翼, 敵愾, 翊戴, 佐理, 靖國, 光國, 平難, 扈聖, 宣武, 清難, 靖社, 振武, 昭武, 寧社, 寧國, 保社 등 20공신과 영조 4년(1728) 戊申亂을 진압한 공으로 새로 녹훈된 분무공신을 말함(국립중앙도서관 『二十一功臣會盟錄』 (일산古2513-25) 해제 참조).

59) 박훈평, “새로 발견된 조선전기 의학서 『胎產集要』 연구,” 『藏書閣』 36(2016), 10.

60) 박훈평(2016), 19.

開版사업을 조카인 소안(素庵)과 함께 깊이 관여한 바 있다.⁶¹⁾ 그러나 그가 어떠한 경로로 『창진집』을 입수하였고, 이후 이 자료가 어떻게 중국으로 전래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제2책 中권의 첫 면 하단의 계선 밖에는 ‘內醫院 上’이라고 묵서되어 있고, 가로 세로 7cm 정방형의 내의원 인장인 ‘內醫院印’이 날인되어 있다. 이 장서인은 상중하 3책 중 中권에만 찍혀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5> 『창진집』 서문과 中권에 찍힌 장서인

4) 集部

집부에는 75종 425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사부와 함께 가장 많은 수량이다. 개인문집을 포함한 별집류가 59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신라시대 학자 崔致遠(857-?)의 시문집인 『桂苑筆耕集』이 2종 소장되어 있다. 전본이 많은 순조 34년(1834) 정리자본(朝153)외에도 더 이른 시기에 간행된 목판본(朝152)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목판본 『계원필경집』에 대해서는 일찍이 현지 조사 후 주목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 소개된 바 있다.⁶²⁾ 박현규는 이 목판본 『계원필경집』을 『고사촬요』 및 『경상도책판』 기록에 근거하여 嶺營간본으로 보았고, 영영 책판의 각판 시기를 인조 연간에서 숙종 연간(1623-1720) 사이로 추정하였다.⁶³⁾ 필자가 실제 자료를 살펴보니 최치원의 서문 외에 간기는 따로 없으나 표지의 배접지로 사용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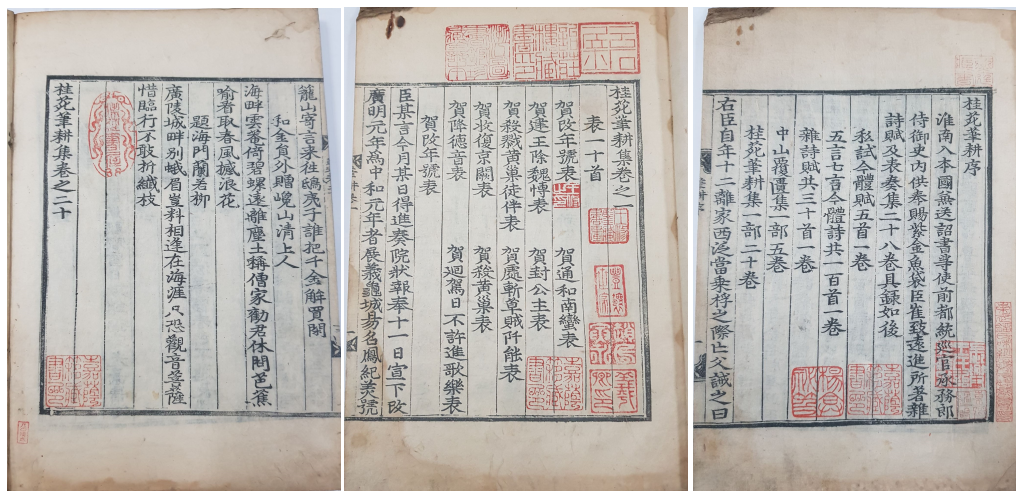
61) 林進, “二尊院の素庵夫妻の墓と『大覺寺文書』收載の『角倉與一(素庵)書狀』について,” 『關西大學博物館彙報』 No 76(2018), 6.

62) 박현규, “중국 소장 신라 崔致遠 『桂苑筆耕集』의 실태조사,” 『中韓人文科學研究』 8집(2002), 79.

63) 박현규(2002), 81.

고문서의 필사 시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배접지는 영조 2년(1726) 병오년 자인현감으로 南國翰(1667-?)을 둔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문서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 자료의 간행시기를 18세기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같은 판본으로는 일본 동양문고(Ⅶ-4-34)와 국립중앙도서관(古3648-82-84)에 완질이 남아 있고, 계명대에 2책 영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그림 6>의 서문, 권수제면, 권말에 찍힌 장서인에 대해서는 다음 장(4.1.4)에서 별도로 논하기로 한다.



<그림 6> 목판본 『계원필경집』의 서문, 권수제면, 권말에 찍힌 장서인

3.2 간행시기별 현황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을 간행시기별로 살펴보면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 자료인 218종 1,120책 가운데 발행년을 알 수 없는 77종 556책을 제외한 141종 564책의 간행시기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5>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간행시기별 분포

구 분	種數	冊數	비율(%)
1500-1599(16C)	3	15	2
1600-1699(17C)	3	51	2
1700-1799(18C)	31	120	22
1800-1899(19C)	73	234	52
1900-1999(20C)	31	144	22
	141	564	100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은 15세기 이전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소장자료 중 간행시기가 가장 오래된 장서는 성종에서 중종연간(1506-1544)에 금속활자 을해자로 간행한 『瘡疹集』이다. 16세기에 간행된 또 다른 장서로는 중종 15년(1520) 목판으로 간행한 『陶靖節集』과 『唐詩始音輯註』 1권1책, 『唐詩正音輯註』 6권7책, 『唐詩遺響輯註』 7권2책, 도합 10책으로 구성되어 16세기 중반 금속활자 을해자로 간행한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대부분의 자료는 18세기 이후 간행자료이며,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9세기 간행된 판본이다. 일제강점기인 1944년 군서당서점에서 간행한 『朝鮮古活字版拾葉』이 소장본 가운데 가장 후대에 간행된 것이다.

3.3 판종별 현황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의 판종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6>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판종별 분포

구 분	種數	冊數	비율(%)
목판본	97	574	44
목활자본	39	221	18
금속활자본	37	122	17
필사본	34	111	16
신연활자본	8	89	4
석판	2	2	1
기타	1	1	
	218	1,120	100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을 판종별로 살펴보면 목판본이 97종으로 전체자료 중 44%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목활자본은 金陵聚珍字, 전사자, 학부목활자, 훈련도감자, 교서관필서체자 등으로 간행한 39종의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속활자본은 37종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활자별로 살펴보면, 갑인자 1종, 을해자 2종, 무신자 3종, 정유자 5종, 현종실록자 3종, 한구자 1종, 교서관인서체자 1종, 정리자 8종, 전사자 13종이 확인되었다. 이외에 필사본이 34종 111책, 신연활자본 8종, 석판본 2종과 기타 1종이 소장되어 있었다.

4. 한국 고문헌의 자료적 특징

4.1 장서인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의 자료적 특징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자료에 찍혀 있는 장서인이다. 절강도서관 관련 장서인뿐만 아니라 절강지역 장서가인 왕수와 유승간의 장서인이 많은 자료에서 발견되었고, 기타 한국 고문헌의 소장경로를 알 수 있는 자료와 조선인의 장서인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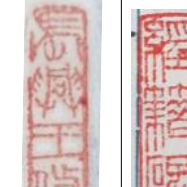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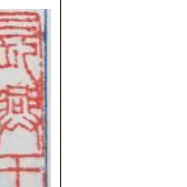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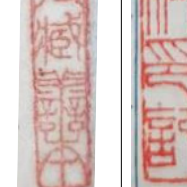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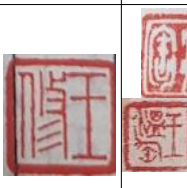
4.1.1 절강도서관 관련 장서인

				
浙江圖書館珍藏善本	浙江圖書館○藏圖籍	浙江圖書館藏		
				
浙江圖書館之鈐記	浙江藏書樓廣儲中外書籍圖表之印證		浙江省立圖書館藏書印	浙江圖書館珍藏書畫

<그림 7> 절강도서관 장서인

첫 번째로 절강도서관 관련 장서인이다. 절강도서관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浙江省立圖書館藏書印’, ‘浙江藏書樓廣儲中外書籍圖表之印證’, ‘浙江圖書館珍藏善本’, ‘浙江圖書館藏’, ‘浙江圖書館珍藏書畫’, ‘浙江圖書館之鈐記’, ‘浙江圖書館○藏圖籍’ 등의 장서인을 확인하였다.

4.1.2 장서가 왕수 부부 관련 장서인

					
長興/王氏詒莊樓藏	詒莊樓藏書印	王修/鑒藏書畫	王修/之印		
					
王季/歡	詒莊樓	楊弇	楊弇/秘笈	長興王修考藏善本	長興王氏校藏經籍碑版印記
					
長興王/修考藏鄉先哲遺著錄	長興王氏/季歡彝器夫婦印記	長興王/氏藏書	長城王修/二十季精神所積	王修	溫甸,王溫甸,彝器

<그림 8> 왕수 부부 장서인

왕수와 부인 온도 관련 장서인 인문(印文)은 최소 27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⁶⁴⁾ 그 중에서 한국 고문헌에 적혀있는 왕수 부부 관련 장서인 인문은 ‘長興王氏詒莊樓藏’, ‘詒莊樓藏書印’, ‘王修之印’, ‘王修’, ‘王季歡’, ‘楊弇’, ‘詒莊樓’, ‘長興王氏藏書’, ‘王修鑒藏書畫’, ‘長興王修考藏善本’, ‘楊弇秘笈’, ‘長興王修考藏鄉先哲遺著錄’, ‘長興王氏校藏經籍碑版印記’, ‘長城王修二十季精神所積’, 부부의 장서인인 ‘長興王氏季歡彝器夫婦印記’과 부인의 장서인인 ‘溫甸’, ‘王溫甸’, ‘彝器’ 등 모두 18개를 확인하였다.

64) 李芳 著, “王修与詒莊樓藏書,” 『圖書館研究与工作』 99(2004), 75-77.

“長興王氏詒莊樓藏”, “詒莊樓藏書印”, “王修之印章”, “王修”, “王季歡”, “楊弇”, “詒莊樓”, “長興王氏藏書”, “王修鑒藏書畫”, “長興王修考藏善本”, “楊弇秘笈”, “楊弇手校”, “修之審定”, “楊弇眼學”, “王楊盒”, “王楊弇”, “長興王修考藏鄉先哲遺著錄”, “長興王氏季歡彝器夫婦印記”, “長興王氏季歡彝器夫婦之印”, “長興王氏校藏經籍碑版印記”, “長興王氏季歡夫婦印記”, “長興王氏考藏善本”, “泉園”, “長興王修二十年精神所積”, “溫甸”, “王溫甸”, “彝器”.

4.1.3 장서가 유승간 장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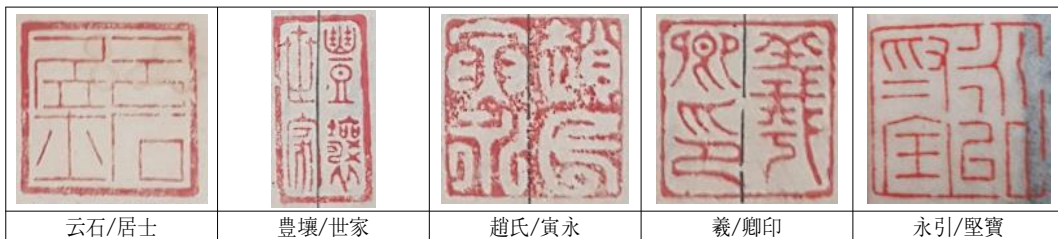


<그림 9> 유승간 장서인

다음은 장서가 유승간의 장서인이다. 절강도서관에서 편찬한 『가업장서루』를 보면, 유승간의 장서인 인문은 모두 57개로 알려져 있다.⁶⁵⁾ 그 중에서 한국 고문헌에 찍혀있는 유승간의 장서인은 ‘吳興劉氏嘉業堂藏書印’, ‘劉承幹字貞一號翰怡’, ‘承幹鈴記’, ‘劉翰怡印’, ‘北平劉氏’, ‘유씨劉氏’ 등 6개이다. 주로 서문, 권수제, 권말 등에 찍혀있다.

4.1.4 소장경로 및 기타 장서인

3.1의 집부에서 살펴 본 『계원필경집』에는 <그림 6>과 같이 책의 서문, 권수제면, 권말 등에 다수의 장서인이 발견되는데, 이 장서인을 통해 책의 이동 경로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밝힌 대로 박현규의 논문에 인용되어 있다.⁶⁶⁾



<그림 10> 『계원필경집』에 찍힌 조인영의 장서인

65) 顧志興, (2008), 554.

“吳興劉氏嘉業堂藏書印”, ‘吳興劉氏嘉業堂藏’, ‘吳興劉氏嘉業堂記’, ‘劉承幹字貞一號翰怡’, ‘貞一鴻雪’, ‘翰怡汲古’, ‘烏程劉氏伯子名承幹字貞一號翰怡印’, ‘翰儀經眼’, ‘翰儀游藝’, ‘翰儀過眼’, ‘承幹鈴記’, ‘劉翰怡印’, ‘北平劉氏’, ‘劉氏’, ‘希古樓’, ‘抗心希古’, ‘御賜金聲玉色’, ‘希古居士’, ‘求恕居士’, ‘嘉業堂’(4종류), ‘嘉業堂藏善本’, ‘嘉業藏書樓印’, ‘南林劉氏求恕齋藏’, ‘南潯劉翰儀收藏書畫’, ‘承幹’, ‘翰怡’(2종류), ‘翰儀’(2종류), ‘貞一’(2종류), ‘劉承幹印’(4종류), ‘翰怡又字貞一’, ‘臣劉承幹’, ‘劉翰怡印’, ‘承幹心印’, ‘劉承幹’, ‘承幹長壽印信’, ‘曾經南林劉翰怡收藏’, ‘翰儀字曰貞一’, ‘翰怡欣賞’, ‘臣承幹印’, ‘嘉業老人’, ‘烏程劉承幹讀過之書’, ‘劉氏翰怡’, ‘劉氏伯子’, ‘劉印’, ‘承幹長壽’, ‘貞一手迹’, ‘翰怡手藏’, ‘翰儀白箋’.”

66) 박현규(2002), 80.

우선, 책의 원 소장자는 <그림 10>의 ‘云石居士’, ‘豊壤世家’, ‘趙氏寅永’, ‘義卿印’, ‘永引堅寶’ 등의 장서인을 통해 조선후기 문인 조인영(趙寅永, 1782-1850)임을 알 수 있다. 조인영은 순조 16년(1816) 성절사의 일원으로 연경에 가서 청나라 금석문 학자인 유희해(劉喜海, 1793-1852)와 교류하였고 이후에도 문헌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조인영 다음 소장자는 ‘燕庭藏書’, ‘嘉蔭移藏書印’, ‘東武鎰氏味經書屋藏書印’, ‘味經室’, ‘味經書屋’ 등의 장서인을 통해 유희해임을 알 수 있다. 유희해는 이 책을 조인영에게 증정받은 것으로 추측된다.⁶⁷⁾



<그림 11> 『계원필경집』에 찍힌 유희해와 섭지선의 장서인

또한, 유희해가 소장하였던 이 책을 ‘東卿過眼’이라는 장서인을 통해 그의 친우인 섭지선(葉志銑, 1779-1863)도 가경 22년(1817) 전후 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⁶⁸⁾

다음 소장자는 <그림 12>의 ‘長興王氏詒莊樓藏’, ‘詒莊樓藏書印’, ‘王修之印’, ‘王修鑒藏書畫’, ‘楊弇秘笈’ 장서인의 주인인 왕수(王修, 1898-1936)이다. 그리고 이 책의 현소장처는 절강도서관으로, ‘浙江圖書館珍藏善本’이 찍혀있다. 이 자료는 장서인을 통해 한중 문헌 교류 및 전래 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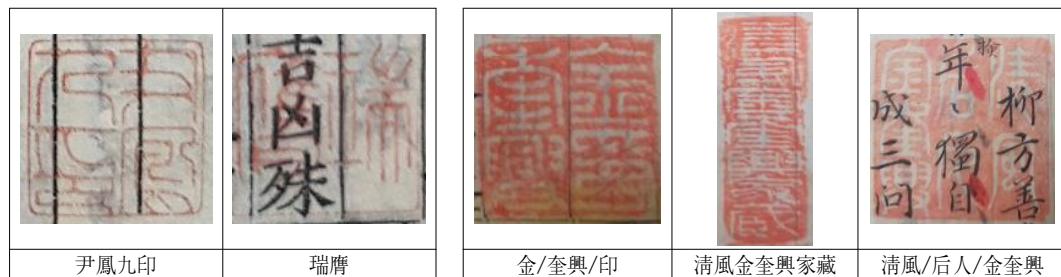


<그림 12> 『계원필경집』에 찍힌 왕수와 절강도서관의 장서인

67) 박현규(2002), 80.

68) 유희해가 조인영으로부터 증정받은 『계원필경집』은 그의 친우인 섭지선도 열람했다. 이들 사이에 이 책뿐만 아니라 해동금석문도 서로 감상하곤 했다. 절강도서관장 유희해 구장본 『당신라쌍계사진감선사비』(7종/탁90본)에 섭지선의 지기와 함께 ‘東卿過眼’이라는 장서인이 찍혀있다. 섭지선의 지기에 의하면 그는 이 탁본들을 모두 가경 정축(22)년(1817)에 열람했다고 적혀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섭지선이 『계원필경집』을 열람한 시기도 아마도 이 시점일 가능성이 다고 하겠다(박현규(2002), 80-81.).

이 밖에 원 소장자가 한국인(엄밀히 말하면 조선시대 인물)이었다가 절강도서관으로 유입된 자료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 남아있다. 『南溪先生禮說』(朝5)의 경우 윤봉구(尹鳳九, 1681-1767)의 장서인 ‘尹鳳九印’과 그의 자호인 ‘瑞膺’이 찍혀있으며, 『國朝詩刪』(朝212)의 경우 김규흥(金奎興, 1872-1936)의 장서인 ‘金奎興印’, ‘淸風金奎興家藏’, ‘淸風后人金奎興’ 등이 찍혀있다.



<그림 13> 윤봉구, 김규흥 장서인

4.2 내사본(內賜本)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중 내사본은 총 8종이 소장되어 있다(<표 7> 참조). 8종의 내사본 중 3종은 사부, 1종은 자부 유가류, 4종은 집부에 속하는 자료이다. 17세기 중반 효종조에 내사된 목활자본 『名世文宗』을 제외하면 나머지 7종 모두 금속활자본이며 19세기 중후반인 철종조, 고종조에 내사된 조선 후기 내사본이다. 내사인으로 6종에서 ‘奎章之寶’가 날인되어 있고, 2종은 ‘宣賜之記’가 찍혀있다. 受賜者는 7종이 개인이며, 1종은 평안감영이다.

<표 7>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중 내사본

구 분		청구기호	서 명	수사자	책수	판본	내사인
史部	傳記類	朝54	三陵誌狀續編	절취됨. 宗正卿으로 보아 종2품 이상의 중친으로 추정 ⁶⁹⁾	1	金屬活字本 (顯宗實錄字)	奎章之寶
	詔令 奏議類	朝93	陸奏約選	沈承秀 ⁷⁰⁾	1	金屬活字本 (丁酉字)	奎章之寶
	政法類	朝94	三班禮式	平安監營 ⁷¹⁾	1	金屬活字本 (全史字)	宣賜之記
子部	儒家類	朝108	朱書百選	鄭謙植 ⁷²⁾	2	金屬活字本 (丁酉字)	奎章之寶
集部	總集類	朝143	名世文宗	元斗杓 ⁷³⁾	31	木活字本	宣賜之記
		朝208	賡進詩	洪奭鐘 ⁷⁴⁾	1	金屬活字本 (整理字)	奎章之寶
		朝209	賡進詩	洪在龍 ⁷⁵⁾	1	金屬活字本 (整理字)	奎章之寶
		朝210	賡進詩	洪鍾應 ⁷⁶⁾	1	金屬活字本 (整理字)	奎章之寶

위 <표 7>을 통해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8종의 내사본 중에 재미있는 자료는 바로 『쟁진시』 3종이다. 내사본을 받은 홍재룡·홍석중·홍종응은 남양홍씨 집안으로, 효정왕후가 헌종의 계비가 되면서 처음으로 왕비를 배출한 집안이다. 특히 홍재룡은 헌종의 國舅이며, 홍석중은 홍재룡의 아들이다. 3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내사를 받았는데, 궁금한 점은 내사본 3종이 어떻게 절강도서관으로 유입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내사인과 ‘절강도서관진장선본’ 장서인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인장도 없고, 목서기록도 없어 자료의 유입과정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4.3 왕수의 친필 기록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의 자료적 특징 중 마지막으로 장서가 왕수의 친필 글씨가 다수의 자료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주요 자료로는 『崇禎紀元後五戊子年司馬榜目』(朝45)을 들 수 있다. 책의 裏題面)는 고종 25(1888)에 치른 생원시에서 3등 33위에 합격하여 명단에 오른 권상수(權相銖, 1873-?)와 북경에서 나이를 초월하여 교유하였다는 기록(<그림 14> 가운데)이 있으며, 또 권말에 조선에서는 명나라가 망한지가 300년이 지났음에도 명나라를 잊지 않고 여전히 숭정연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왕수 자신의 견해를 기록한 필사기(<그림 14> 오른쪽)가 남아 있다. 이 기록은 1933년에 작성된 것으로, 왕수 자신 역시 작성일자를 기록하면서 ‘崇禎紀元後五癸酉長興王修記’라고 하였다.

그 밖에 『通文館志』(朝83) 제1책의 이제면⁷⁷⁾과 『牧民心鑑』(朝84) 제1책 표제면⁷⁸⁾ 『思復齋先生實記』(朝59)의 표제 글씨, 『明心寶鑑抄』(朝113), 『天文類抄』(朝130) 권말 배지, 『杜律分韻』(朝144) 표지⁷⁹⁾ 『皇華集』(朝145) 이제면, 『臥隱先生文集』(朝184) 권말⁸⁰⁾ 『櫟菴集』(朝197) 권말 등 많은 자료에서 왕수의 친필을 확인할 수 있었다.

69) 同治四年(1865)七月 日 宗正卿○○○內賜 三陵誌狀一件 命除謝恩 直閣臣李

70) 同治元年(1862)二月 日 人日製 賦次上幼學沈承秀 內賜陸奏約選一件 命除謝恩 檢校待教臣鄭[着名]

71) 同治七年(1868)七月 日 內賜三班禮式一件 平安監營上 左副承旨臣洪[着名]

72) 甲寅(1854)三月 日 參班幼生應製銘 次上幼學鄭謙植 內賜朱書百選一件 命除謝恩 檢校直閣臣鄭[着名]

73) 順治十二年(1655)八月 日 內賜兼兵曹判書元斗杓 名世文宗一件 命除賜恩 行都承旨 臣尹[着名]

74) 咸豐四年(1854)六月 日 副司直洪奭鐘內賜 廣進詩一件 命除謝恩 檢校直閣 臣金[着名]

75) 咸豐六年(1856)六月 日 領敦寧洪在龍內賜 廣進詩一件 命除謝恩 檢校待教 臣趙[着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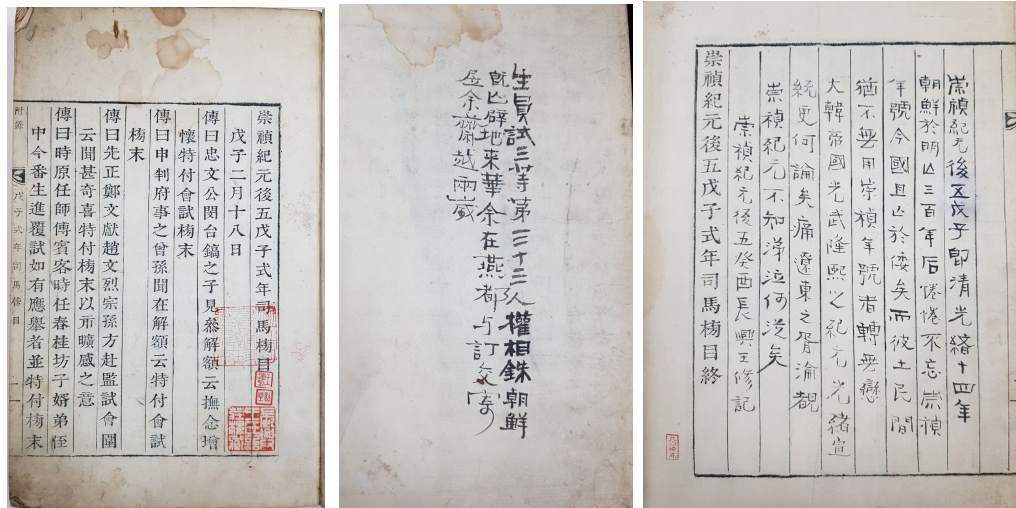
76) 咸豐六年(1856)六月 日 大護軍洪鍾應內賜 廣進詩一件 命除謝恩 檢校待教 臣趙[着名]

77) 此書李湛重刊序題戊戌(1778)中秋以目錄紀年續篇下注目自辛丑至戊戌凡五十八年…(이하생략).

78) 牧民心鑑四十八卷 朝鮮舊寫本 朝鮮丁鏞撰 鏞字茶山洙水人朝鮮正宗. 서명이 ‘牧民心鑑’이라 되어 있으나 정약용이 편찬한 ‘牧民心書’와 동일한 내용임.

79) 乙丑三月 兼彝器同赴瀋陽 遇朝鮮友人 得此 長興王修

80) 壬戌(1922)秋七月長興王修讀



<그림 14> 『승정기원후오무자년사마방목』 이제면과 권말에서 발견된 왕수의 친필 글씨

왕수의 친필이 발견된 자료의 특징으로는 몇 가지가 있다. 조선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라는 내용을 기록하거나, 조선의 학자가 편찬한 문집이나 경세서인 경우 책을 읽고 느낀 점에 대해 기록을 남겼다.⁸¹⁾ 자료의 내용으로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정리·편찬한 것, 명심보감 중에서 긴요한 것을 抄略한 것, 정조의 명에 의해 두보의 읍시를 선집한 책, 명나라 사신과 주고받은 시를 모은 책, 중국의 승정연호를 사용하고 있는 조선의 과거 합격자명단 등의 책⁸²⁾이다. 그 밖에는 表題에서 왕수의 친필 목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⁸³⁾

5. 나오는 말

국립중앙도서관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두 해에 걸쳐 절강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선본과 일반고서 포함) 총 218종 1,118책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의 수집 경위와 서지 분석, 자료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절강도서관은 절강성 省도서관으로, 현재 항주에 위치해 있다. 특히 절강성 지역은 중국에서도 일찍부터 인문환경이 조성되었고 출판업이 흥성하여 문화와 학술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어 많은

81) 장위항(張緯恒, 1678-1747)의 시문집 『臥隱先生文集』(朝184),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牧民心鑑』(朝84), 강진규(姜晋奎, 1817-1891)의 문집 『櫟菴集』(朝197)

82) 『通文館志』(朝83), 『明心寶鑑抄』(朝113), 『杜律分韻』(朝144), 『皇華集』(朝145), 『崇禎紀元後五戊子年司馬榜目』(朝45).

83) 『思復齋先生實記』(朝59).

장서가를 배출하였다. 따라서 절강도서관 장서 형성의 큰 줄기도 절강지역 장서가들의 기증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절강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역시 이들 장서가, 즉 왕수, 유승간 등의 소장본이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왕수의 소장본은 전체 한국 고문헌 중 1/3에 해당되며, 고서점을 통해 수집하기도 하였지만 한국인을 통해 직접 수집하기도 하였다. 한편, 절강대학교 장서인이 찍힌 한국 고문헌도 12종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한국 고문헌을 주제별, 간행시기별, 판본별로 서지적 분석을 하였다. 먼저 주제별로 살펴보면, 경부가 25종 129책, 사부 76종 270책, 자부 42종 296책, 집부가 75종 425책이 소장되어 있다. 간행시기별로는 16세기 간행된 『창진집』부터 20세기 간행된 『조선왕자관습첩』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19세기의 장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판종별로 살펴보면 목판본이 가장 많으며, 이 외에도 금속활자 37종, 필사본 34종 등이 소장되어 있다.

자료적 특징으로 장서인, 내사본, 왕수의 친필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절강도서관 소장의 한국 고문헌의 원 소장자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장서인을 통해서였다. 절강도서관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절강도서관 관련 장서인이 있음은 물론, 장서가 왕수와 부인 온도 관련 장서인과 유승간의 장서인이 한국 고문헌에 찍혀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계원필경집』의 경우 처음에 조인영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청대 금석학자인 유희해에게 증정하였고, 그의 친우인 섭지선이 열람하고, 이후 왕수가 소장하였다가 절강도서관으로 기증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내사본은 총 8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갱진시』의 3종의 경우 受賜者가 모두 남양홍씨 집안이라는 것이 의문으로 남는다. 한편, 왕수의 친필 글씨를 알 수 있는 자료도 다수 확인되었는데, 조선의 지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과 책의 구입내역, 책을 읽고 느낀 소감 등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향후 중국 소재 한국 고문헌에 대한 유출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단행본]

국립문화재연구소.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중국 운남대학 도서관 소장 한국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중국 푸단대학도서관 소장 한국문화재』. 서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5.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중국 상하이도서관 소장 한국문화재』. 서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5.

金天游. 『中國藏書家考略』.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潘美月. 『宋代藏書家考』. 臺灣: 臺灣學會出版社, 1980.

- 吳 晗. 『浙江藏書家史略』. 北京: 中華書局, 1881.
- 장미경. 『중국고대장서문화』. 서울: 차이나하우스, 2017.
- 浙江圖書館古籍部. 『浙江圖書館古籍善本書目』.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2002.
- 절강성도서관지편찬위원회. 『浙江省圖書館志』. 杭州: 中國書籍出版社, 1994.
- 杭州圖書館. 『浙江藏書家傳略』.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3.

[논문]

- 박훈평. “새로 발견된 조선전기 의학서 『胎産集要』 연구.” 『藏書閣』 36(2016). 6-30.
- 박현규. “중국 소장 신라 崔致遠 『桂苑筆耕集』의 실태조사.” 『中韓人文科學研究』 8집(2002). 69-93.
- 봉성기, 김효경. “중국 요녕성도서관 소장 한국본 장서와 이나마 이와키치컬렉션에 관한 고찰.” 『고전적』 13(2018. 7). 39-49.
- 李性忠. “浙江圖書館捐贈史述略.” 『圖書館研究與工作』 2007. 4期. 2-8.
- 이혜은. “국립중앙도서관 국외소재 고문헌 수집사업의 성과와 과제.”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수집 성과와 과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9. 73-85.
- 장미경. “명청대 강남지역 장서가의 문화적 역할.” 『중국학논총』 제21호(2006. 6). 357-377.
- 趙長海. “章嶽天行草堂藏書捐贈史事考.” 『天一閣文叢』 12(2015).
- 周欣平. “中華書本文化的數位保存及發揚: 柏克萊經驗.” 『雲世紀下的新傳奇』. 臺北: 國家圖書館, 2018. 23-32.
- 何力邁. “走進藏書家的世界——訪杭城藏書家陶承杏先生-.” 『浙江檔案』 1994. 1期. 21-22.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age. 2011. *Overseas Cultural Properties Research Catalog-Korea Rare Books in Yunnan University Library in China*. Daeje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age.
-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2015. *Korean book collection Fudan University library*. Seoul: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2015. *Korean book collection in Shanghai library*. Seoul: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 Park, Hyun Kyu. 2002. “A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Choi Chiwon(崔致遠)’s Gye Won Pil Gyeong Jib(桂苑筆耕集) in China’s Possession.” *The Society of Korean &*

- Chinese Humanities*, 8: 69-93.
- Park, Hun Pyeng. 2016. "A Study on Newly Discovered Taesanjibyo (『胎産集要』), Medical Book in the Early Period of Joseon Dynasty." *Jangseogak*, 36: 6-30.
- Bong, Seongki & Kim, Hyo-kyoung. 2018. "A Study on Korea Rare Books and Inaba Iwakichi Collection in Liaoning provincial library of China." *Gojeonjeok*, 13: 39-49.
- Li, Xingzhong. 2007. "A Summary on history of Book Donation in Zhejiang Library." *Library Science Research & Work*, 4: 2-8.
- Lee, Hye Eun. 2009. "Performance and Tasks on Collective Project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for Korean Rare Books in Foreign Country." *Performance and Tasks of Collecting the Korean Rare Books in Foreign Country* (pp. 73-85).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Jang, Mi Kyung. 2017. *Book Collection Culture of Ancient China*. Seoul: Chinahouse.
- Jang, Mi Kyung. 2006. "A cultural role of Collector in the Jiangnan Region of Ming-Qing China." *Journal of sinology*, 21: 357-377.
- Zhao, Changhai. 2015. "A Study on the History of donation of Zhang Qin's Collection." *Tianyi pavilion series*, 12.
- Zhou, Peter. 2018. "Preserving and Cultural Transmission of Chinese Book Culture through Digitization: The Berkeley Experienc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 New Heritage in the Cloud Age: Adding Value to and Interpreting Ancient Books*, (pp. 23-32). Taipei: National Central Library.
- He, Limai. 1994. "Into the world of Book Collector, Mr. Tao Cheng Xing." *Zhejiang Archives*, 1: 21-22.

